

2010. 27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소식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 757·7851 FAX 02·778·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10. 7. 12 발행인 : 최홍준





## 싣는 순서



1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3
---	-----------------	---



2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7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8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0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10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1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3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3



3	한국평협 회원 단체	
	> 성 빙 체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14



4	평협소식	
	> “생명의 문화를 향하여”	15
	2010 전국 생명대회에 다녀와서	

## 알림

◎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명동성당에서 개최됩니다. 대회를 하느님의 뜻 안에서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④ 한국평협 2010년 제Ⅱ차 상임위원회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 민병덕 신부)는 지난 5월 15일 대전교구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올해 첫 상임위원회를 열고 2010년 사업계획을 총회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착실히 진행하기로 하고, 특히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교황청 주최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에 적극 참여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결의하고,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를 잘 준비하기 위해 오는 6월 26일 서울 명동 코스트홀에서 한국 평신도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5월 14일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 참가자 교육과 함께 진행돼 각 교구의 대회 참가대표와 각 유동·단체의 대표들,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과 아시아대회 준비위원 등 120여 명이 함께 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의 필독문헌들을 대전교구장인 유흥식 주교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교회의 선교사명」,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 대회 준비위원장인 한홍순 교수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평신도 그리스도인」, 서울 가톨릭대학교 교수인 박준양 신부가 교황 청 문헌 「주님이신 예수님」,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아시아 교회」의 순으로 강의했다.

이어진 상임위원회를 통해 지난 2월 총회에서 새 회장에게 위임했던 임워 구성에 대한 보고를 듣고,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했다. 또한 총회에서 결정된 한국가톨릭 평신도대회에 대한 실행 일시를 6월 26일로 확정하고, 대회에서 다룰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올해 예정됐던 상임위원회 일정을 일부 변경했는데, 7월 안동평 협 주관으로 열릴 예정인 2차 상임위원회는 내년으로 미루고, 대신 7월 9~11일 음성 꽃동네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 생명대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그리고, 9월 춘천평단협 주관으로 실시 예정이었던 3차 상임위원회는 11월로 연기하기로 했으며, 10월 23일에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에 대한 평가회를 갖기로 했다.



## ⑤ 한국가톨릭 평신도대회를 통해 복음화 의지 다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6월 26일 서울 명동 코 스트홀에서 각 교구와 유동·단체 대표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톨릭 평신도대회'를 열고 모든 평신도가 복음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님을 선포하기'라는 주제 아래 개최된 이번 대회는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5일 서울 명동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를 잘 준비하기 위한 준비의 하나로 슈교자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바탕위에 비약적으로 성장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시아 형제자매



들과 나누고 이 시대의 사명인 아시아 복음화의 선두에 서야 할 한국교회의 역할을 매김하는 기회가 됐다.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는 격려사에서 “평신도로서 아시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것이 오늘날 우리의 과제이고, 아시아 평신도대회가 지향하는 모토이기도 하다”며 “평신도들은 교회의 일워이라는데 바로 그 이유로 복음을 선포할 소명과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회를 주최한 한국평협의 최홍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신자에 대한 선교와 더불어 냉담자를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나를,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분,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은 “나 자신부터 먼저 복음화하는 일이고, 이웃을 복음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내가 먼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강의에 나선 박준양 신부(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이번 아시아가톨릭 평신도대회에서 다룬 4개 문항을 바탕으로 한 강의에서 “선교의 첫째 요소는 복음 선포이며, 두 번째 요소는 대화”라며, “일방적인 복음의 선포는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각 사람과 종교적 전통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과 진리의 빛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올바른 복음 선포를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선포 할 것인가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박신부는 복음을 선포하는 이가 갖춰야 할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이라며, 복음선포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도 바오로의 ‘레오파고스에서의 연설’이 큰 모범으로 제시됐다고 했다. 또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를 구현하고, 초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평신도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먼저 평신도가 ‘삶속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강의에 이어 광구별 토론행사 발표와 단체별 발표가 이어졌다. 서울광구는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최홍준 회장이 대표로 발표하며, 춘천, 대전, 인천, 수원, 월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간단한 소개가 있었으며, 대구광구는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임경수 부회장이 발표에 나서 대구, 부산, 청주, 마산, 안동교구의 토론행사를 요약 발표를 했다. 이어 광주광구는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서정규 회장이 광주, 전주, 제주교구에 대한 발표를 하고 단체에서는 성 빙체시오 아 바오로 한국이사회와 미리아사업회(포콜라레 유동), 레지오 마리애 등에서 복음화 활동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나눔을 가졌다.

주제 강의와 발표에 이어 한국평협의 담당사제인 민병덕 신부의 주례로 파견미사가 봉헌됐으며 참석자 일동의 이름으로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 한국가톨릭 평신도대회 선언문

### ‘우리의 사도직’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2010년 6월 26일 서울 명동 코스트홀에서 개최한 한국가톨릭 평신도대회에 참석한 우리는 ‘자리 안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신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모든 주제들을 복음화해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상기하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허히 돌아보고, 순교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일으키고 가꾼 한국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성직자, 수도자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를 이루며, 지금 여기서 나부터 새 사람이 되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나아가 아시아와 온 세계에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모든 날을 주님께 봉헌하며, 우리 자신이 ‘세상 속의 교회’로서 현세 질서에 하느님의 입김을 불어넣어 그분의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데에 앞장섬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기쁘게 수행하겠습니다.



3.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라”(루카 4:18-19 참조)고 하신 말씀을 따라 각자 일터와 사회에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며, 삶의 현장에서 시대의 징표를 읽어내고 복음의 빛을 밝혀주는 예언자직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4. 우리는 세상에 굶주림과 협박음이 사라지지 않은 까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가 지닌 지식과 정보와 재화를 이웃과 사랑으로 나누며, 이 세상의 모든 구조적인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 적극 나설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왕직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5. 우리는 미래인 가정에 내리신 하느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실천하여 그리스도인 가정이 이웃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자녀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르겠습니다.

2010년 6월 26일

한국가톨릭 평신도대회 참석자 일동



#### “생명의 문화를 향하여 ”전국 생명대회 참가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작년 주교회의 추계총회에서 죽음의 문화가 넘치는 현대사회에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는 문화로 바꾸는 데에 힘을 모으기 위해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공동주최하기로한 ‘전국 생명대회’에 참여했다.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청주교구 꽃동네에서 열린 전국 생명대회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됐다. 첫날이 대회를 공동주최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의 주례로 개막 미사를 봉헌하고, 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의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강 주교는 이번 대회가 “용기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아고발과 성찰을 통해 가능해졌다”고 밝히면서 “생명을 거스르는 모든 행위는 치욕이며, 이는 불의를 당하는 사람보다도 그려한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더럽히며, 창조주의 영예를 극도로 모욕하는 것”이라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생명의 복음 3항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 “인간은 하느님과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함을 지닌다”는 것을 강조했다.

첫 번째 강의 아동의 신부의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시작으로 6개의 강의가 첫 날과 둘째 날에 걸쳐 이어졌으며 둘째 날 저녁에는 소리없이 죽어간 낙태아들의 무덤인 태아동산으로 이동해 문화공연과 생명수호 묵주기도를 내용으로 ‘생명의 밤’ 행사가 실시됐다.

둘째 날부터는 청년들을 위한 1박 2일의 프로그램이 별도로 진행됐으며, 첫 날 포럼부터 참여한 참가자들과 둘째 날부터 참여한 참가자 모두 저녁 행사인 ‘생명의 밤’부터 함께한 가운데 진행되어 마지막 날 미후모 문제를 다른 현장의 소리와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근절에 앞장서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최아나 씨가 나와 활동을 소개했고, 마지막으로 이 대회의 주최자





이 주교회의 생명유리위원회 위워장 장봉호 주교의 주례로 파견미사와 폐막식이 열렸다.

파견미사 중 봉헌예절에서 첫 번째로 전국 레지오 마리애 회워들의 묵주기도를 서울 세나뚜스 한희윤 단장이 봉헌했고, 두 번째로 장기기증서 집계를 한국평협 최홍준 회장이, 생명 상징물을 한국기톨릭여성협의회 권경수 회장과 임워들이, 마지막으로 생명운동지침서(안)을 행복한가정운동의 이숙희 회장이 봉헌했다. 영성체 후 거행된 폐막식에서 청년들의 생명지킴이 모임인 ‘프로라이프청년회(회장: 안병욱)’의 발대식과 함께 한국평협 최홍준 회장의 생명수호 결의 선언문 낭독, 교황님과 교황대사의 격려사와,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총 장관 등 각계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공동주최 기관인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워장 염수정 주교의 인사말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 제5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시상식 ‘영원한 사제시여’ 영예의 최우수상 수상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작년 말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제4회 작곡 공모를 갖고, 오정민(안젤라·서울 한강본당)의 ‘영원한 사제시여’를 최우수상에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귀민아(크리스티나·서울 잠실3동본당), 지형규(사도 요한·구종 비성대본당)씨가 장려상에는 박상철(모세·서울 갈현동 본당), 김길범(아우구스티노·인천 대야동본당), 정동현(베드로·서울 종암동본당)씨가 각각 선정됐다.

이번 작곡 공모는 한국평협이 지난해 실시한 제4회 우리성가 노랫말 심사에서 선정된 노랫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상식은 지난 7월 7일 명동대성당에서 수상작 연주 미사와 함께 열렸다. 최우수상을 받은 오정민 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하느님이 주시니 재능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쓸어내겠다”며 성음악 창작에 더욱 열심히 참여할 것을 다짐했고, 이날 미사를 집전한 주교회의 평신도 사도직위원회 위워장 염수정 주교는 강론에서 “하느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며 “전례에서 중요한 요소인 성가는 필수적인 것으로 우리교회의 성음악 전통과 정신이 충분히 반영되면서도 한국인의 품성이 반영되도록”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다.

이번에 뽑힌 곡들은 오는 11월 8일 열리는 2010년 평신도주일 기념, 제6회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에서도 연주되며, 한국평협은 우리 성가 노랫말 공모와 작곡공모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국평협이 “우리 정서에 맞는 아름답고 친근한 성가를 만들어 신자들이 하느님과 더욱 일치토록 함으로써 전례를 토착화하고 활성화 하자”는 취지 아래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마련한 작곡 공모에는 총 53점(32명)이 응모해 우리성가 창작에 대한 신자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 '성 최경환 가정교실' 기쁨의 눈물로 마쳐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 민병덕 신부)가 점점 무너져가는 가정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가정이 바로 서려면 구성원이 각자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특히 후들리는 가정을 바르게 살리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올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돋는 '성 최경환 가정교실'의 '아버지 과정'과 '어머니 과정'이 각각 6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지난 5월 11일(어머니 과정)과 15일(아버지 과정) 수료 미사를 봉헌해 각각 24명이 과정 전체를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이날 마지막 화해의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성 최경환 가정교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고, 가정 내에서 각자가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 처음으로 실시한 아버지 과정의 결과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도 절박한 실정이라는 요청에 따라 올해는 어머니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아직 미숙한 점은 있지만 참가한 어머니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냈다.



### 평신도학교 '공의회 과정' 1학기 78명 수료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매년 2학기 30주 과정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16개 문헌을 공부하는 '공의회 과정'이 지난 6월 21일 1학기 과정을 마치고 7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수료식에서 1년 전과정 수료생도 12명이 배출됐다.

서울평협은 "공의회 문헌을 다시 손에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뜻을 따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6개 문헌 전체를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를 강사로 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 단체 소식

## 서울대교구 가톨릭경제인회

## 담당사제 영명축하 행사 및 정기 신양세미나

서울가톨릭경제인회는 지난 6월 29일 베드로, 바오로 축일을 맞이하여 담당사제인 조학문 바오로 신부 영명축일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축하미사에 이어 축하식과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축하식에서 최철수 회장은 축일 맞은 회원들에게 직접 꽃을 달아주며 축하인사를 했다. 이어서 꽃다발 증정과 담당사제의 약력소개가 있었다. 축사에서 최철수 회장은 교구 행정과 회계제도와 같은 관리제도를 보완 시설한 공적사항을 소개한 뒤 담당사제가 바라는 ‘봉사자의 자세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희망과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겠다’고 다짐했다. 답사에서 조신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한 번뿐이기에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고 베드로, 바오로 성인의 삶을 통해 스스로의 삶을 잘 살펴보자”며 ‘미사에 참석하여 축하해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남은 사제생활동안 교회를 위해 주어진 소명에 충실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했다. 장소를 대강당으로 옮겨 마련한 만찬에서 참석회원들은 담당사제의 영육간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함께 축배를 들었다.

## 신양세미나 개최 ‘내 마음속의 행복’



금년도 첫 신양세미나가 7월 2일 금요일 오전 7시에 가톨릭회관 2층 강당에서 ‘내 마음속의 행복’ 이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초청 연사인 불광동 성당 홍성만 주임신부는 ‘인간의 한계성을 깊이 체험한 나머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느님의 품으로 다가서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내용의 강의를 했다.

또한 서울경제인회와 각 교구 경제인회는 제2회 한국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협찬금을 모금하여 7월 13일 의정부교구를 방문하여 협찬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평협 상임위원회와 교구장 간담회 개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홍거, 담당 임기선 신부) 상임위원회는 5월 1일(토) 16시30분부터 대전교구청 회의실에서 교구장 유홍식 주교를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 동부지구를 비롯하여 11개 지구회장과 본과장이 참석하고 임기선 담당사제와 사목기획국 양희창 차장신부가 배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지구회장은 지구회장단 회의의 개최 횟수와 참여정도에 대해 보고하고 평협과 지구 그리고 본당과의 연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교구청의 이전계획에 대한 질문에 유홍식 주교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현재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고, 강경 김대건 유숙지 성지화 사업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부서에 성지화에 대해 이미 이야기한 상태다.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기다려달라고 했다.

한편 4대강 사업에 대한 천주교의 입장에 대해 교우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말에 대해 “분명한 것은 가톨릭의 입장은 창조질서를 10년 앞을 내다보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다”며 4대강 사업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주교는 “평신도는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 누룩의 역할을 해야 한다. 생명경시와 가치관의 후도으로 어려움



을 주고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소통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바란다. 여기 계신 분 모두 각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실테 모든 일에 복음의 뉴스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란다. 특히 교구 사목지표에 명시된 대로 소공동체교육과 순교영성교육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교육을 통해 변화된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교육에 참여해 달라. 또 교구의 모든 시스템이 양업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지구의 모든 본당이 양업시스템을 사용해 투명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달라”고 당부하고, “한끼 100원 나눔 운동이 뜻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 4대강 사업 저지 선언문 발표

대전교구 평협은 5월 10일 4대강 사업을 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교구 본당에 배포하였다. (아래는 전문)

####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선언

4대강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후 2010년 3월 8일 대전교구장 유홍식 주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주교님과 전국 1,105 명의 신부님들(대전교구 79명)이 4대강사업 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3월 12일 한국천주교주교단에서는 생명문제와 4대강 사업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교구장 유홍식 주교님께서는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 우리 자신과 미래의 세대에게 책임 있고 양심적인 길을 택하도록 거듭 촉구하셨습니다.

정부가 물 부족 해결, 홍수예방, 수질개선이라는 3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20~30조원을 투자하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발표로는 우리나라가 UN이 정한 물 부족국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UN은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고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의 수요가 가장 높고 최악의 가뭄이 닥칠 때를 기준으로 물 부족을 이야기하는 처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4대강 하천 정비율은 이미 97%에 달하며, 홍수피해는 4대강 본류와 상관없는 지역으로, 중소하천, 산간계곡에서 발생하는데, 홍수예방을 위해 4대강을 주설하고 댐수준의 보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4대강 사업은 댐수준의 보를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조정하므로, 필연적으로 물이 고이고 썩어 수질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고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적 진리를 정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선진국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원래 모습의 강을 되찾기 위해 댐이나 보를 철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교회문화 등을 통한 가르침에서 제시하는 사회의 핵심가치, 즉 창조적 자연존서의 가치, 문화적 가치, 경제적 효용성의 가치, 정의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입각하여 4대강 사업이 가진 문제점을 간파하고 성찰과 회개를 촉구하는 한국주교단성명서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주저하지 않고 용기 있게 죄악의 정체를 밝히고 죄악을 고발할 수 있는 역량과 책임을 부여받았음”(평신도그리스도인 14 항)을 상기하며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위하여 우리 자신과 미래의 세대에게 책임 있고 양심적인 길을 선택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0년 5월 10일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사제의 해 폐막미사와 도보성지순례 참여

대전교구 평협은 6월 11일 사제도보성지순례와 사제의 해 폐막미사에 참석했다. 사제의 해를 마치면서 이루어진 이 행사는 여사울 성지에서 솔뫼성지까지 16Km의 성지길을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사제와 순교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걸었다.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설정 50주년 '기념의해' 개막미사 주관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진철, 담당 안규태 신부)는 교구는 50주년을 맞이하여 반세기를 걸어온 지난날들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교구가 되고자 지난 6월 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답동 주교좌 성당에서 최기산 주교와 교구 사제단 집전으로 지구별 회장단과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의 해(2010년 6월 5일~2011년 11월 27일) 개막미사 및 행사를 주관했다.

오전 9시 묵주기도 봉헌으로 시작되어 차동엽 신부의 강의와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음악부의 찬양으로 이어졌다. 오전 11시 미사에는 교구 설정 50주년 '기념의 해' 선포식을 통해 43만 교구민이 더욱더 마음을 모아 내적·외적쇄신과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선포식을 마친 후 교구기와 본당기·단체 및 기관기가 입장과 교구주보이신 '바다의 별 성모 마리아상' 13기가 꽃수레에 실려 입장했다.

복음선포 5050 출범식에서는 교구 복음화 사목국 새복음화부 담당 정윤섭 신부의 선창으로 복음선포 5050 결의문을 낭독, 교구 주보 '바다의 별 성모마리아상' 축복과 파견식, 묵주기도 1억5천만 단 중 첫 1단을 다함께 봉헌했다.

최기산 주교는 강론에서 "교구설정 50주년 기념의 해가 새로운 도약이 되도록 2009년 '쇄신', 2010년 '성장', 2011년 '감사'의 목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교구 설정 50주년 사업과 매일 기도, 5050선교 목표 영성센터 건립을 위한 봉헌에 교구민이 함께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개막 미사 후 오후 1시30분부터 가수 김수희(마리아)씨의 축하공연이 1시간 30분 동안 열려 참석한 신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고 교구 설정 50주년 개막행사를 마쳤다.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35회 교구장기 테니스대회 개최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김종해, 담당 김율석 신부)는 지난 5월 21일 제35회 교구장기 교회 및 직장 테니스대회를 대구가톨릭대학교 하양 캠퍼스에서 개최했다.

교회 대항 13개 본당 19팀이 참가했고, 직장대항은 11개 15팀이 참가했으며, 개인대항은 여성, 남성, 부부로 나누어져 전체 13팀 340명이 참가해 공정한 경기를 펼쳤다.

날이 많이 더워 지치는 하루였지만 모두들 즐기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해서 무사히 결승전까지 잘 치를 수 있었다. 열띤 응원을 펼쳐서 응원상도 경합이 벌어 졌는데 응원상은 도량성당과 파티마 병원 B팀에서 가져갔다.

올해 우승팀으로는 교회 단체 우승팀은 범어성당에서, 직장 단체 우승팀은 파티마병원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 우승팀은 남성, 여성, 부부 순으로 육수성당, 효자성당, 무태성당에서 차지했다.



## 광주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 사제와 평신도 어울림 한마당

광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회장 서정규, 담당 박성열 신부)는 사제의 해를 보내면서 사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어울림 한마당의 자리를 마련했다. 9개 지구평협에서는 각 지구별로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 각각 삼행이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가졌으며, 교구평협에서는 5월 21일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운동장에서 특수사목을 담당하신 교구 사제들을 초대하여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 어울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참석한 사제와 평신도들은 사제의 해에 맞춘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례행사로 추진하여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 어울리는 나눔의 장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 2차 상임위원회 개최 및 업무보고

광주평협은 6월 12일 제2차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4월 30일 광주대교구 제9대 교구장으로 착좌한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평협의 시작에서 현재까지의 연혁과 그동안 펼쳐왔던 주요사업들을 중심으로 보고를 받으신 교구장은 교구를 이끌어 가는데 좋은 사목방향의 의견들을 평신도 차워에서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한국 평신도대회와 전국생명대회 등 전국적인 행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 '생활성가 하루피정' 개최

광주대교구 여성위원회(위원장 고문희, 담당 박성열 신부)는 6월 14일 평생교육원 대성당에서 김정식 로제리오와 함께하는 '생활성가 하루피정'을 개최했다. 각 본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임원들을 중심으로 450여 명이 모여 즐거운 노래와 함께한 피정은 강사의 재치 있는 유머와 노래, 그리고 율동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피정에 참가한 모든 이는 피정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으로 힘을 얻었으며 본당과 사회 속으로 돌아가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겠다고 다짐했다.





## 지구 소식

## 동부지구 무등산 옛길 걷기와 자연보호

동부지구평협(회장 정병워, 담당 황양주 신부)은 5월 2일 한마음대회로 무등산 옛길 걷기와 자연보호 행사에 9개 본당 350여 명이 참가했다. 이 행사를 통해 각 본당간의 많은 정보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신부님들과 평신도간의 격의 없는 대화로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하는 친교의 시간이 됐다.



## 서부지구 한마음체육대회

서부지구평협(회장 남청웅, 담당 김재기 신부)은 5월 2일 평생교육원 운동장에서 11개 본당 800여 명이 모여 한마음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어울리는 한마당 잔치로 돼지몰기, 제기차기, 훌라후프 돌리기, 가위 바위 보 릴레이 등 다양한 경기를 통해 본당과 본당 간,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가 일치를 이루는 시간이 됐다.



## 여수지구 5.18 30주년 사진전 및 합동추모미사

여수지구평협(회장 권혁세, 담당 정병옥 신부)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아 여수지구 자체적으로 사진전(5월15~19일)을 문수동성당에서 가졌으며, 분향소를 설치 운영하여 민주영령들의 뜻을 기렸다. 이어 5월 18일에는 여수지구 사제단 합동으로 추모미사를 봉헌했다.



## 단체 소식

##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산행미사



여성산악인회(회장 임현신, 담당 박성열 신부)는 5월 24일 50여 명의 회원이 태안반도로 단합대회를 다녀왔고, 6월 4일에는 시각장애인 35명을 회원 38명이 손을 잡아 인도하면서 이야기도 나누며 무등산 늦재에 올라 담당 사제 집전으로 산행미사를 봉헌했다.



## 운전기사사도회 창립총회

유전기사사도회(회장 김현철, 담당 한덕수 신부)는 5월 26일 평생교육원에서 창립 21주년을 맞아 총회와 감사미사봉헌, 체육행사를 가졌다. 평소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전기사사도회는 차량 내 선교용 책꽂이를 설치하여 차동엽 신부의 지워으로 무지개워리, 참 소중한 당신, 선교용 책자 등을 비치하여 유행하고 있어 손님들의 반응이 무척 좋아 선교활동의 우수사례가 되고 있다.

## 광주ME 도입 30주년 축하 가족한마당

ME광주협의회(대표부부 봉정수·김경숙, 담당 최상준 신부)는 6월 27일 ME가 광주에 도입된지 30주년을 기념하고 부부일치운동이 정착되기까지 함께한 모든 분들을 초대해 ‘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라는 주제로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광주KT정보센터에서 가족 한마당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대회전부터 ‘100회 이상 연속 사랑의 편지쓰기(부부간 매일 10분 쓰고, 10분 대화)’를 추진했고, 그동안 장기간 사랑의 편지(4,500회, 1,500회 이상)를 쓴 부부에게 시상을 해 부부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사제의 해 폐막미사 및 황인규 신부 금경축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강상근, 담당 신부)는 사제의 해 폐막일이자 사제 성화의 날인 지난 6월 11일(금) 중앙성당에서 사제의 해 폐막미사를 봉헌하고 사제직의 거룩한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사제수품 50돌을 맞

는 황인규 신부 금경축 행사가 이어져 교구민들에게 더 큰 의미와 기쁨의 시간이 되었다.

미사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평신도들은 주님의 혼례 안에 고요히 머무는 성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이병호 주교 주례와 사제단 공동 집전의 장엄한 미사가 거행됐다. 이병호 주교는 “사제들이 참된 목자 이신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닮느냐에 따라 사제의 삶이 결정된다.”며 사제들은 사제 이전에 인간이며 보통 사람보다 훨씬 위험과 어려움이 많기에 사제들이 성령 안에서 하느님께 꼭 붙어있게 기도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황인규(마태오)신부 금경축 행사에선 홍보국에서 황신부의 삶의 여정을 영상에 담아 보여 주었고 멀리 대구에서 온 유치원 학동들이 꽃목걸이를 걸어줘 눈길을 끌었다. 강상근 교구 평협회장은 축사에서 “지난 50년, 하늘이 주신 은총의 긴 여정을 교회가 추구하는 참된 진리를 전하며 신자들의 참 길잡이가 되어주신 신부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황인규 신부는 답사에서 “금경축이라서 황금빛 제의를 입고 제단에 서니 가슴이 벅차다”며 “최선을 다한 삶, 보람 있는 삶, 은총 속에 살아온 삶이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술회했다.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성모의 밤 행사 거행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문덕영, 담당 고병수 신부)가 주관한 2010년도 ‘제주교구 성모의 밤’ 행사가 5월 20일(목) 새미 은총의 동산에서 제주교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교토교구(교구장 오오초카 요시나로 주교) 방문단 16명과 타교구 성지 순례단 200여명을 포함하여 3,500여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 날 행사는 교구장 사목지침인 ‘가장이 솔선수범하는 소공동체’에 따라 ‘가장에게 힘을 북돋우는 믿음의 여인’을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제 1부 양심성찰, 고해성사 및 묵주기도, 제2부 화과식과 참석자들이 손수 작성한 편지봉투에 이어 미사를 봉헌하고 제3부는 촛불행진, 가족퀴



지 낭독, 본당별 풍선 띠우기 순으로 진행됐다.

교구장 강우일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초대를 받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난 후임자치에 참석하였듯이 우리는 오늘 성모님을 가운데 모시고 교구 성모의 밤에 참석하고 있다. 성모님은 우리의 눈이 좀 더 멀리 내다보기를 원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신다면 파티마에 발현하셔서 말씀하셨던 죄인들의 회개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 평신도를 위한 특별강연회 개최

제주교구 평협은 6월 19일 오후 2시부터 가톨릭회관 2층 강당에서 평신도를 위한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각 본당 총회장 등 사목위워들과 평협 상임위원회 등 200



여명이 참석한 이날 강연회는 종대리 김창후 신부가 ‘평신도의 신분과 역할’을 강의하였고, 교황청 주재 한홍순 대사의 ‘평신도 그리스도인’ 특강에 이어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 (8. 31 ~ 9. 5)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홍순 대사는 특강에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20년을 지낸 교회와 세상에서 평신도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1987년 바티칸에서 개최된 주요 시노드 제 17차 정기회합의 후속 문헌으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88년 12월 30일 발표한 교황 칙고”라고 소개한 뒤 문헌이 나오기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평신도는 생활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성 빌체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캄보디아 해외봉사

성 빌체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는 지난 4월 19일부터 24일까지 캄보디아 캄퐁참 지역 로빅 빌리지, 칸차이 빌리지, 드로뱅창 빌리지 등 빈민가 지역에서 회원 29명이 의약품 · 의복 · 생필품 지원을 비롯해 집수리와 무상급식 지

워, 지원금 전달, 우물을 2곳에 파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 상임이사회 개최

성 빌체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2/4분기 상임이사회가 지난 6월 5일 가톨릭회관 1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는 지난 4월에 있었던 캄보디아 해외봉사 보고와 다가오는 2011년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논의했다.

## “생명의 문화를 향하여” 2010 전국 생명대회에 다녀와서

최홍준 파비아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오랜 동안 이 땅의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 애써왔고,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음성 꽃동네에서 ‘생명의 문화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전국 생명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1일 파견미사 봉헌 예식 때 저는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생명 나눔을 봉헌했습니다.

“저희 평신도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1989년 서울 세계성체대회 이후 지금까지, 한마음한몸운동 정신에 따라 뇌사 시 장기기증 72,217건, 각막기증 78,580건, 조직기증 22,068건, 모두 85,562명이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저희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오늘 2010년 전국 생명대회를 계기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을 삶의 첫 자리에 모시면서 장기기증 등 생명 나눔의 정신을 더욱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낙태와 자살풍조를 걷어내고 생명의 문화를 차단하게 꽂피우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그 마음을 모아 봉헌합니다.”

### “태아보호 장기기증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낙태율, 자살률은 1위이며, 출산율은 최하위입니다. 매일 1,000여 건의 낙태가 지속되고 있고, 매일 38명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가 배아는 인간이 아니라고 판결하는가 하면, 여성계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함으로써 낙태를 합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공동 주최로 “생명의 문화를 향하여” 우리 모두 함께 가지고, “태아보호, 장기기증 제가하겠습니다”라는 다짐과 함께 전국 생명대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지난해 2009년 10월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는 2010년 전국 생명대회를 승인했고, 금년 3월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는 생명운동과 관련해 교구와 본당에 생명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는 한편,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가 앞으로 3개 전국 단체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한국 레지오 마리애와 협력해서 전국 생명대회를 준비하고 대사회 생명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평협은 7월 9일과 10일 안동에서 열기로 예정했던 상임위원회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이 대회에 적극 참여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한국평협은 2003년 2월, 낙태허용 조항을 두 모자보건법이 제정, 발효된 지 30주년에 즈음해서 발족한 주교회의 생명31운동이 전개되면서 운영위원 단체로 동참했고, 2005년 ‘황우석 사태’가 큰 파장을 몰고 왔을 때 생명존중을 주제로 한 평신도주일 강론자료를 전국 본당에 제공하면서 생명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농환경분과위원회’를 ‘도농생명환경위원회’로 개칭하면서 생명의 존엄함을内外에 알리고 신자들 자신부터 낙태와 안락사, 자살 풍조를 극복하고 생명의 문화 창달에 힘쓸 것을 다짐해왔습니다.

### 조직적이고 통합적인 생명운동 계기 마련

이번 전국 생명대회는 크게 네 부분으로 진행됐습니다. ①전국 생명운동 관계자와 16개 교구 생명운동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생명포럼(7.9~10 꽃동네 영성원), ②청년들이 참여하는 청년생명캠프(7.10~11 꽃동네 연수원), ③전국의 본당 대표들과 신자들이 참여하는 생명의 밤(7.10.19:30 꽃동네 연수원), ④ 1,5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여한 생명다짐의 날(7.11)에는 감명 깊은 공연과 강연들이 있었고, 주교회의 생명유리위원회 위원장 장봉훈 주교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를 비롯한 사제단이 공동 집전하는 파견미사가 봉헌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개별 단체 위주의 생명운동이 이제 어느 정도 뿐만내렸다고 보고, 이번 전국 생명대회 개최를 계기로 조직적이고, 전체적이며, 통합적인 생명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습니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총무 송열섭 신부는 “이번 생명대회는 교회의 생명운동 전반을 늘어볼 수 있는 첫 대회였다”며, “이제 구체적인 확산과 실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우리 교회는 ①16개 교구와 1570여 본당에 생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교구와 본당의 생명위원회는 앞으로 교회 생명운동 네트워크를 이루어 활동해 나고, ②생명운동의 나침반이 될 생명운동지침서를 준비합니다. 주교회의 승인을 거쳐 반포될 생명운동지침서는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그 구체적 실천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③미혼모를 돕는 새생명 프로젝트를 전개해 교구와 본당, 학교와 병원, 그리고 미혼모 시설의 연대활동을 통해 미혼 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의 가까운 벗이 되어줄 것입니다. ④장기기증운동을 활성화합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아름다운 유산인 장기기증운동을 널리 확산해 나갈 것입니다. ⑤사회적 생명윤리의식을 증진시키고 범국민적 생명문화 건설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명을 존중하는 의료계·사회·학계·정치·종교 각계각층과 협력할 것입니다.

###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끝으로 이날 생명대회를 마치면서 제가 참석자 일동의 이름으로 낭독해 동의를 얻은 결의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우리는 인간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존중받아야 하며, 배아와 태아, 임종을 앞둔 말기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②우리는 낙태를 조장해 온 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 조항 삭제와 생명경시풍조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③우리는 미혼모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④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대한 거역 행위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⑤우리는 배아 연구와 사형제도 등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법률의 폐지를 위해 기도하고, 입법과 행정에 참여하는 지도자들에게 생명을 수호하는 올바른 법과 정책을 만들도록 촉구하겠다. ⑥우리는 난치병으로 절망에 빠져있는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 연구 및 역분화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하며, 생명의 나눔이요 아름다운 유산인 장기기증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